Global Dairy Report
글로벌 낙농뉴스
해외 정책동향 및 낙농뉴스

2021.3.22 | www.dairy.or.kr | 통계조사팀(044-330-2072)

[정책동향] 佛, 우유 원산지 표기 법령 폐지

- 자유로운 유제품 수출을 위한 EU 단일시장 원칙 준수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우유에서 원산지를 찾아보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지난 2016년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프랑스산 농산물 홍보 및 농업을 지원하고 식품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가공식품 중 육류와 우유 제품에 대해 원산지 표기를 허용한 바 있다.

한편, 프랑스의 최대 유업체인 락탈리스가 이에 대해 반발하며 최고행정법원에 압력을 가함에 따라 법원은 이를 비합법적으로 간주하고, 우유의 원산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품 라벨에 표기토록 규정한 법령을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당초 해당 법령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시범 도입된 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하지만, 락탈리스가 이에 대해 소비자 대상 식품 정보 제공에 대한 유럽연합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데 이어 최근 유럽사법재판소가 프랑스산 원산지 표기는 유럽연합 단일시장 원칙의 본질을 흐린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함에 따라 법원도 우유의 지리적 원산지 표기는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유럽낙농협회(EDA)는 물론 락탈리스도 유럽내 자유로운 유제품 수출을 위해 단일시장 유지가 중요한 만큼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출처 : just-food.com, 3월 16일 〉

[낙농경영] 네덜란드, 해조류 사료보충제 안전성 의문 제기

- 와게닝겐 대학, 바다고리풀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추가 연구 필요성 제기

주요 원유생산국에서 해조류를 활용한 젖소의 메탄가스 감축을 위한 연구가 한창인 가운데, 네덜란드에서 해조류에 함유된 화학물질이 젖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해조류의 일종인 바다고리풀이 사료가 소화되는 과정에서 생리활성 물질인 브로모포름을 생산해 장내 메탄가스를 발생시키는 특정 효소를 억제시키는 것으로 알려지며 이를 보충제로 활용한 메탄가스 감축 연구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와게닝겐 대학교 연구진은 젖소에게 바다고리풀을 급여했을 때 브로모포름이 메탄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유독성을 띄고 있어 젖소의 소변, 분뇨 및 원유에 잔류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실제로 앞선 연구를 통해 바다고리풀이 양의 반추위에 기형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진은 바다고리풀을 사료보충제로 활용할 때 젖소의 건강이나 원유 품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을 입증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브로모포름 함량이 적거나 아예 함유하지 않으면서 메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종류의 해조류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 출처 : feednavigator.com, 3월 16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